

프랑스어동사 《avoir(소유하다)》의 의미적기능에 대한 리해

목 명 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의 산물이며 사회생활의 반영인 언어는 시대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되고 풍부화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5권 119페이지)

언어는 인류사회와 함께 발생하여 장구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단어가 일단 발생한 다음 그것이 언어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그 언어의 고유한 역사적과정과 관련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실례로 *habere*는 인디아-유럽어족의 라틴어단어로서 일단 발생한 다음 주로 서부 언어들에서 쓰임이 확대되였다. 그 기능과 쓰임은 《있다》(즉 라틴어 *esse*)와 경쟁하게 되었으며 일부 경우에는 《있다》를 구축하게 되였다.

프랑스어가 발전하는 과정에 *avoir*(가지다)의 기능이 확대되어 *être*(있다)의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어는 소유관계를 *avoir*가 표현하는것으로 특징지어지게 되였다.

이와는 반대로 슬라브어군의 하나인 로어에서는 소유관계를 《У меня есть + 명사》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인디아-유럽어족안에서도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수단들의 기능적변화는 로만어군과 슬라브어군, 게르만어군 등 어군에 따라 각이하게 진행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언어적수단들의 기능적분화는 친족어들사이에는 물론이고 계통이 다른 언어들사이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어동사 *avoir*의 의미적기능에 대하여 론하려고 한다.

프랑스어동사 *avoir*는 우선 주체와 객체사이의 소유관계를 나타낸다.

례: Vous me direz si vous n'avez pas assez de pain.

(빵이 모자라면 말씀하십시오.(ne pas avoir assez ...이 모자라다))

*avoir*에 대한 등가어로서 우리 말 《소유하다》는 대역사전에 제시되어있지만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그리 쓰이지 않는다.

례: Il montra qu'elle avait plus de 25 minutes.

(그는 그 여자에게 아직 시간이 옹근 25분이나 남아있다고 시사하였다.(avoir plus de... ...에게 시간이 있다))

프랑스어 《avoir + 시간단위》구조에는 우리 말 《시간단위 + 있다》가 대응된다.

례: J'ai 2 heures.(나에게는 2시간이 있다.)

소유관계가 과정을 가리킬 때에는 우리 말에서 그에 맞게 등가대역을 구체화할수 있다.

례: D'habitude, tous les élèves avaient cinq sur cinq en cette matière.

(보통 이 과목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5점만점을 받았다.(avoir cinq ... 5점을 받다))

역사적으로 추상적관계를 표현하는 언어적수단들은 구체적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부터 생겨났다. 이런 견지에서 공간관계는 가장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들중의 하나이다. 즉 공간관계는 시간관계의 기초로 되였고 나아가서 인과관계표현의 기초로 되었으며 소속관계의 수단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고대시기 언어들에서 소속관계가 공간상의 위치동사들로 표현되게 된것은 결코 우연

하지 않다. B.C.800년전에 창작된 그리스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는 소유관계를 《...안에 있다.》라는 공간구조로 표현하고있다.

라틴어동사 possideo(=소유하다 <potis + sedeo 앓을수 있다)도 어원적으로 공간관계를 표현하는 구조(sedeo 나는 앓다)에서 나온것이다. 로어의 소유관계표현(y него есть)도 본질상 공간관계를 표현하고있다.(= находится при нем с ним 그곁에 나란히 위치하다)

현대언어들에서도 공간관계와 소유관계표현은 항시적으로 호상작용, 호상교체 및 침투하는 관계에 있다. 즉 《그는 이런 특질을 소유하고있다.》와 《그에게는 이런 특질이 있다.》는 똑같은 의미이다. 의미론적범주들의 류사성은 그것들을 표현하는 수단들의 의미변화에도 반영되지 않을수 없다.

로어와 우리 말에서는 각각 《у меня есть...》와 《나에게는 ...이 있다.》라는 공간구조로부터 소유관계의 표현수단이 생겨났다면 프랑스어에서는 동사 avoir가 초기의 소유관계의 표현기능으로부터 공간관계를 담당하게 되는데로 의미체계를 발전시켰다.

프랑스어동사 avoir는 또한 주체에 대한 객체의 위치관계를 나타낸다.

레: ○ A sa droite il avait sa soeur.

(그의 오른쪽에는 녀동생이 앓았다.)

○ Vous avez la gare tout près.

(정거장은 아주 가깝습니다.)

○ Tu as les verres sur le dernier étage.

(고뿌들은 선반 맨 윗층에 있단다.)

프랑스어 avoir구조는 대상의 다양한 특성을 밝히는 수식구조로 기능한다.

레: Outre la forêt, le pays possédait un autre objet de fascination, sa rivière.

(이 고장에는 수림외에도 또 하나의 매력적인 시내물이 있었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간이나 소유관계의 의미가 매우 약화되면서 새로운 형의 관계 즉 수식관계가 표현되고있다.

avoir동사부류(avoir의 동의어들로 구성되는 동사부류 posséder, disposer de, jouir de 등)의 수식기능은 다음과 같은 실례들에서 명백하게 찾아볼수 있다.

레: ○ Cet arbre a des feuilles.

(이 나무는 넓은잎나무이다.)

○ Cet appartement a tout le confort.

(이 세대에는 온갖 편의가 다 보장되어있다.)

○ Son lit avait des rideaux.

(침대에는 침대보가 씌여져있다.)

○ Il n'avait plus sa casquette.

(그는 모자를 쓰지 앓았다.)

○ Nous avons tous des caoutchoucs et des parapluies.

(우리는 모두가 비옷과 우산을 썼다.)

수식관계 또는 특성의 지적은 《avoir + 명사 + 형용사》구조로써도 표현할수 있다. 이때 명사는 주체의 특성으로서 수식형용사를 연결시켜주는 보조적기능을 가진다.

레: ○ Elle a un caractère très vif.

(그 녀자는 성격이 매우 활달하다.)

○ Il avait sa casquette enfoncée sur ces sourcils.

(그는 모자를 눈썹까지 푹 내리 썼다.)

이러한 형태의 수식구조들에서는 특히 인체의 부분을 가리키거나 그것들의 기능발현을 지적하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례: ○ Il a les yeux bleus.(그의 눈은 푸르다.(혹은 그는 눈이 푸르다.))

○ Il a le geste haut.(그는 손짓이 거만하다.)

○ Il a de grands yeux doux.(그의 눈은 크고 부드러웠다.)

○ C'est drôle comme les gens ont l'air content, ce soir.

(오늘 저녁 사람들이 만족해하는것을 보니 이상스럽다.)

○ Il avait les pieds gonflés.

(그의 두발은 부어있었다.)

프랑스어에서는 흔히 《avoir + 추상명사》구조가 주체에 대한 수식표현으로 쓰인다.

례 : Avoir du courage / de l'ambition / du toupet / des distractions (= courageux,/ ambitieux/ distrait) 용감하다/야심적이다/뻔뻔스럽다/방심하다

《avoir + 명사》구조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상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쓰인다.

례: Avoir faim / sommeil / chaud / 배고프다 / 졸리다 / 덥다

Avoir des douleurs / une maladie / des regrets / de la joie

아프다 / 앓다 / 후회하다 / 기쁘다

상태와 감정, 체험을 나타내는 avoir구조는 우리 말로 각이한 방법으로 대응시킬수 있다.

례: ○ Je vois que vous n'avez pas l'envie de donner une consultation .

(보건대 진찰하는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것 같군요.)

○ Il en avait le regret.

(그는 후회하였다.)

○ Pierre avait pour Philippe cette adoration qu'ont souvent les petits pour l'aîné.

(빠에르는 꼬꼬맹이들이 흔히 맏형을 따르듯이 필리프를 따랐다.)

우의 실례들에서 avoir l'envie / le regret / l'adoration 등은 《마음에 내키다/후회하다 / 따르다》등의 분석구조로 전달될수도 있고 단순어대역으로도 전달할수 있다.

《소유자 + 동명사》구조는 주체의 급작스러운 행동이나 반응을 표시한다.

례: ○ Il eut un cri / un rire / un frisson.

(그는 웨쳤다/웃었다/전율하였다.)

○ Il eut sourire malin.

(그는 지긋게 웃었다.)

○ Il eut un geste d'énervement.

(그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 Il eut une grimace de douleur.

(그는 아파 얼굴을 찌프러였다.)

○ Elle a eu un regard haineux.

(그 녀자는 증오에 차서 보았다.)

○ Ils ont eu des remarques malheureuses.

(그들은 불미스러운 지적을 받았다.)

우의 실례들에서 동사 **avoir**는 자체의 어휘적의미를 거의 상실하고있다. 행동의 구체적의미는 전적으로 동명사가 표현하므로 **avoir**는 단순히 인칭과 시칭의 술어범주만을 담당할뿐이다. **avoir**는 주체와 객체를 련결시키는 형식적기호로 전환되고있다.

례: ◦ Parmi les grands écrivains, nous avons Maupassant.

(이름난 작가들중에는 모빠쌍이 있다.)

◦ J'ai mon fils qui est malade.

(내 아들이 앓고있다.)

◦ Ils ont leur fille qui part au Québec.

(그들의 딸은 께베끄로 간다.)

◦ J'ai mes rhumatismes qui me font souffrir.

(나는 관절염으로 앓고있다.)

《avoir + 명사》구조는 형태 및 크기, 나이, 병, 감정, 느낌, 활동 등 각이한 의미부류와의 관계속에서 각이한 련관을 나타낸다.

례: ◦ La caserne a 3 mètres de haut et 8 mètres de long.

(병영의 높이는 3m, 길이는 8m이다.(크기))

◦ Il a dans les 45 ans.

(그는 45살가량 되었다.(나이))

◦ Des bâtiments qui ont plus de 250 ans.

(250년이 지난 건물들이다.(경과))

◦ Il a eu la rougeole à 10 ans .

(그는 10살때 홍역을 앓았다.(병))

◦ Qu'est - ce que tu as ?

(무슨 일이 있소? (사건))

◦ Il aime avoir des amis.

(그는 친구들과 사귀기를 좋아한다.(교제))

◦ Je n'ai rien ce soir.

(오늘 저녁 나에게는 댄 일이 없다.(활동))

◦ Ils m'ont eu.

(나는 속았다.(기만))

우리 말에서 동사 《있다》가 존재의 의미뿐만아니라 장소와 위치, 동식물의 서식지, 소유관계, 경험과 상태, 본질, 리유, 논의대상 등 각이한 과정을 나타내는것처럼 프랑스어동사 **avoir**는 두 대상사이에 맺는 온갖 관계를 가장 구체적인것으로부터 가장 추상적인 정도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표시하는 일종의 타동사적계사이다.

우리는 프랑스어동사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적기능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외국어를 능숙하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이다.